

中·高等學校 必讀圖書目錄에 관한 研究

邊 宇 烈*

〈목 차〉

- | | |
|-------------------|---------------------|
| I. 緒論 | IV. 必讀圖書의 管理와 運營 |
| II. 必讀圖書의 定義와 必要性 | 1. 必讀圖書目錄의 管理 |
| 1. 用語의 定義 | 2. 必讀圖書의 評價 |
| 2. 必讀圖書의 必要性 | 3. 必讀圖書 選定을 위한 參考資料 |
| III. 必讀圖書의 選定과 構成 | V. 要約 및 結論 |
| 1. 必讀圖書 選定의 基準 | 參考文獻 |
| 2. 必讀圖書의 構成 | Abstract |

I. 緒 論

學校教育의 측면에서 보면 讀書教育의 領域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번째 영역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독서교육의 형태로 古典的인 讀書教育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영역은 독서에 의해서 그 사람의 情緒를 醇化시키고 價值觀을 바르게 하여 人格形成을 도모하고자 하는 독서교육이다. 또 한 가지 영역은 知識과 情報를 획득하기 위한 독서교육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을 敎科學習을 위한 독서 즉 學習讀書이라고 부르고 있다.¹⁾

* 公州大學校 師範大學 圖書館教育科 副敎授

1) 椎野正之, “必讀書という言葉の考え方: その周邊をめぐっての覺書,” 學校圖書館, 第73號(1956. 11), p. 21.

2 圖書館學論集 (第24輯)

이러한 두가지 독서교육의 영역을 명백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어 지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느 한가지 영역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인간의 情緒醇化와 價値觀確立을 통하여 人格形成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의 독서는 現代社會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人間性 喪失과 가치관의 붕괴, 黃金萬能主義 思考의 팽배, 한탕주의 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知識과 情報를 획득하기 위한 學習讀書는 정보화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변화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 學習讀書를 통하여 평생교육의 기초를 다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대는 生活을 위한 독서, 生存을 위한 독서, 知識獲得을 위한 독서가 讀書生活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生活의 一部이며 生活 그 自體인 것이다.

따라서, 學校教育 現場에서는 이 두가지 독서교육 영역중에서 어느 한가지도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를 適切하게 混合한 형태로 독서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教育現場에서는 그 동안 독서교육을 形式的으로 非體系的으로 실시한 것이 사실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식편중의 교육으로 일관하여, 인간의 품성을 바로 잡는 인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形式에 치우쳐 체계적이지 못하고, 學習方法을 가르쳐 平生教育의 基礎를 다지기 보다는 주입과 암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독서교육을 통하여 정서순화와 價値觀確立을 도모하고 平生教育의 基礎를 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讀書教育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독도서를 선정하여 體系的인 讀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必讀書의 選定은 학생

들이 어떠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망설이다가 닥치는 대로 읽어 버리거나 發達段階에 맞지 않아 이해하지도 못하는 도서를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한가지 주제에 편향된 독서습관을 바로 잡아 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地域마다 學校마다 劃一的이고 一律的인 必讀圖書는 금물이며, 각 학교와 학년 그리고 학급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教育的인 次元에서 필독도서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좋은 책 한권의 讀書가 때로는 한 個人의 一生을 變化시키고 運命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강한 影響力을 가지고 있다. 특히, 知的 好奇心이 강하고 感受性이 예민한 靑少年 시기에 좋은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所重하고 값진 經驗이다.

특히, 人格形成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時期라고 할 수 있는 靑少年期の 讀書는 靑소년들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올바른 삶의 세계로 引導해 주는 精神的인 行爲인 동시에 所重한 情緒的 體驗이다. 왜냐 하면, 靑소년시기의 독서에서 받은 강한 印象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잊지 못하고 평생 神의 啓示처럼 항상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靑少年들에게 情緒醇化와 價値觀確立을 도모하고 나아가 教科學習에 도움을 줄 수 있는 必讀圖書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즉 필독도서의 定義와 必要性, 필독도서를 어떻게 選定하고 構成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필독도서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學校現場에서 必讀圖書制度를 실시하고자 할 때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必讀圖書의 定義와 必要性

1. 用語의 定義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책 중에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알맞는 도서로서 그들의 성장과 정서순화에 유익하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를 모아 놓은 것을 必讀圖書, 정독도서, 選定圖書, 추천도서, 勸獎圖書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한다.

必讀圖書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또는 꼭 한번은 읽을 가치가 있는 책²⁾이다. 즉, 인생의 어떤 時期에 있어서 읽어 두지 않으면 안되는 도서 또는 읽는 것이 강하게 要求되는 圖書³⁾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精讀圖書는 여러모로 살펴서 정밀하게 읽어야 할 도서⁴⁾ 또는 內容이나 形式을 검토하면서 자세히 읽어야 할 도서⁵⁾이다. 다시 말하면, 摘讀이나 通讀을 하지 않아야 할 도서로서 內容을 깊이 이해하여 감상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生活課題나 學習課題 해결에 利用할 수 있는 問題를 찾을 수 있는 도서라 할 수 있겠다.

이어서, 選定圖書는 여러가지 도서 가운데서 골라서 정한 도서⁶⁾ 즉, 생활, 학습, 여가선용, 정서함양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도서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골라서 뽑아 놓은 도서라 할 수 있겠다.

2)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서울:三省出版社, 1986), p. 3, 604.

3) 藤川正信, “必讀書目の問題,” 學校圖書館, 第73號(1956. 11), p. 47.

4)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서울:어문각, 1992), p. 3, 656.

5) 신기철, 신용철, 前掲書, p. 2, 948.

6) 上掲書, p. 1, 851.

다음으로, 推薦圖書는 어떤 조건에 적합하거나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도서를 학생들에게 내세운 책⁷⁾으로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알맞고,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하거나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勸獎圖書는 권하여 장려하는 책⁸⁾ 즉,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여러가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읽을 것을 권하고 장려하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用語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成長에 유익하고 發達段階에 알맞은 도서로서 여러가지 課題解決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도서들은 절대적인 基準이 있을 수 없고, 개개 학생들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획일적으로 고정화해서 운용해서는 안된다. 각급 학교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여기에서는 필독도서, 精讀圖書, 선정도서, 推薦圖書, 권장도서 등의 다양한 용어 중에서 학생들의 情緒醇化를 도모하는 관점과 필요한 知識과 情報를 얻을 수 있는 관점에서 必讀圖書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必讀圖書의 必要性

현대사회의 특성을 간단히 표현하면 高度産業社會와 情報化社會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고도산업사회의 특징은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 왔으나 너무 物質的 豐饒만을 추구한 나머지 역기능으로 精神的인 貧困 現狀이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機械化, 産業化의 물질로 인하여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사고가 팽배하

7) 上掲書, p. 3, 298.

8) 한글학회, 前掲書, p. 509.

였을 뿐만 아니라 투기, 복권 등 한탕주의 사고가 만연하여 價値觀의 混亂이 초래되고 人間性 喪失이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過程이나 節次보다는 結果만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人間疎外 현상과 犯罪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중에는 밝고 맑게 자라나야 할 靑少年犯罪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범죄중에는 學生犯罪가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⁹⁾ 이러한 청소년범죄중에는 크게 罪意識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利慾을 위하여 他人의 權利를 침해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여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형의 범죄가 상당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情緒를 醇化하고 人間性回復과 價値觀定立을 위한 독서교육이 결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人間形成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靑少年期에 있어서 독서는 올바른 삶을 보여 주고 인도해 주는 정신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독서는 가장 소중한 情緒的 體驗이며 교양적인 체험인 것이다. 그것은 이 시기의 독서에서 받은 강한 인상이 成人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고 일생동안 神의 啓示처럼 항상 마음의 심층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의 책이 한 個人의 一生을 바꾼 경우가 상당수 있다. 즉, 노예를 解放시킨 책¹⁰⁾, 위대한 考古學者를 만든 책¹¹⁾, 영웅을 만든 독

9) 청소년백서 : 1995 (서울 : 문화체육부, 1995), p. 414.

10) 美國의 大統領 Lincoln은 스토우 부인이 쓴 「톰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읽고 감명을 받은 끝에 노예를 해방시키기로 결심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를 해방시켰다.(김영진. 책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서울 : 웅진출판, 1995. pp. 57-60 참조)

11)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가 된 Heinrich Schlieman은 소년시절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다 준 「어린이를 위한 역사이야기」를 읽고 트로이 유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50년의 집념 끝에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이야기」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삽화도 곁들여 있었는데, 그 삽화 중에는 그리스군의 침략을 받아 불타고 있는 트로이시의 모습이 있었다.(김영진.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서울 : 웅진출판, 1995. pp. 38-42 참조)

서¹²⁾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므로 知的 好奇心이 강하고 청소년기의 핵심을 이루는 중·고등학교 때 부터 체계적으로 讀書教育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서교육을 통하여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고, 정서를 순화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가치관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情報化社會의 가장 큰 특징은 情報의 洪水現象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連續刊行物은 140,000종¹³⁾이나 되며, 일반서적은 약 78,000종¹⁴⁾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매일 6백만 내지 7백만 편의 科學記事가 작성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는 매년 13%씩 증가하고 있어서 5년반이면 두배로 증가하게 되며, 머지않아 2년에 두배의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¹⁵⁾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情報와 知識을 모두 暗記하고 注入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무모한 일이다. 그리고 情報化社會에서는 知識과 技術의 變化速度가 대단히 빨라서 기존에 습득한 지식과 정보는 불과 몇년 사이에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방안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情報와 知識을 찾아 내고 찾아낸 지식과 정보를 소화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 課題解決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이다. 즉 어떠한 것을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망설이지 않고 體系的으로 讀書를 하여 課題解決 能力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必讀圖書目錄이 꼭 필요한 것이

12)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은 그가 지구상에 머무른 기간인 52년간 8천여권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무사였던 나폴레옹은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달리는 말 위에서 책을 읽고, 진지안에서도 책을 읽었으며, 원정을 가는 곳마다 학술조사단을 배치할 정도였다. 점령지에 대한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배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김영진.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서울 : 웅진출판, 1995. pp. 18-22 참조)

13)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993~1994: Including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2nd ed.(New York : R. R. Bowker, 1993), p. vii.

14) Unesco, Statistical Yearbook (Paris : Unesco, 1990), pp. 6-13.

15) John Naisbitt, 제4의 돌결, 徐文鎬 譯 (서울 : 원음사, 1983), pp. 32-35.

다.

이상과 같이 必讀圖書의 必要性은 크게 두가지 즉 情緒涵養과 價値觀 確立을 위한 觀點과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 내어 課題解決 能力을 길러 줄 수 있는 觀點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은 時間的, 經濟的 사정 때문에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독서자료를 모두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의 能力과 興味, 發達段階, 圓만한 人格 形成 등의 견지에서 체계적으로 선정해 놓은 필독도서목록이 필요하다.

② 어떤 책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 버리는 亂讀을 방지하고, 난독의 결과 이해하기 어려워 도중에 독서를 중단하는 폐단을 예방하고, 독자의 個性을 尊重하고 그 개성이 편향되게 성장하는 일이 없도록 원조하여 체계적인 독서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독도서목록이 필요하다.

③ 올바른 讀書習慣과 평생의 讀書計劃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습득시켜 讀書의 生活化가 가능하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④ 학생들에게 우수한 책을 제공함으로써 독서재료에 대한 판단력을 육성시켜 주어 범람하는 메스컴의 소용돌이 속에서 良書와 適書를 選擇하는 能力을 길러 주고, 讀書의 不均衡 즉 편향적인 讀書를 防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⑤ 독서는 학생들의 教科學習이나 特別活動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必讀圖書目錄은 정보화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하여 체계화하는 방법 즉, 學習方法을 學習 (Study How to Study)하는 능력을 습득시켜 과제해결 能力을 길러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⑥ 필독도서목록은 독서를 통하여 학생들의 情緒를 醇化하고 아름다운 심성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人間性을 回復하고, 價値觀을 定立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人格形成에 필요한 독서재료를

계통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教育的 意義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Ⅲ. 必讀圖書의 選定과 構成

1. 必讀圖書 選定の 基準

必讀圖書는 教科學習과 特別活動 등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할 수는 없다. 필독도서제도는 항상 교육적인 배려하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일관된 지도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必讀圖書의 選定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폭넓은 독서재료중에서 엄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자기 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나 아니냐를 불문하고 필독도서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독도서 선정에 있어서는 學年, 教科 등의 관계자 뿐만 아니라 자료전문가와 主題專門家의 자문을 받아 現場指導者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필독도서 선정의 기준을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1) 必讀圖書 選定の 一般적 基準⁶⁾

① 각 교과와 學習活動을 원조하기 위한 도서이어야 한다.

必讀圖書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과학습 진행에 있어서 教師는 학생들이 그 과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參考文獻 즉, 학습활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목록을 계통적으로 소개하여 학습활동을 원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각 교과목별로 學習單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學習內容과 관련이 깊은 도서목록을

6) 菅井光男, “高校推せん圖書の 指導と 反省,” 學校圖書館, 第198號(1967. 4), pp. 43-44.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서는 국어과목의 일부로서 소설이나 수필 읽기로 진행되어서는 의의가 없으며, 더구나 독서가 餘暇善用이나 情緒醇化 만을 위한 도구로 존재해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다.

② 特別活動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이어야 한다.

必讀圖書는 학생들의 特別活動을 원조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여러가지 특별활동 즉, Home Room 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활동 등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도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必讀圖書는 學習活動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特別活動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이어야 한다.

③ 學校行事 등의 활동을 원조하기 위한 도서이어야 한다.

학교에는 文化祭 行事, 소풍, 修學旅行, 산업시찰, 見學 등의 다양한 행사가 있다. 학교행사는 학교생활에 변화를 주고 학생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필요한 독서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④ 教養과 人格形成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이어야 한다.

필독도서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을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 주고, 情緒醇化와 價値觀 定立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 폭 넓은 교양을 쌓고, 정서순화와 가치관 확립을 통하여 人間形成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特定 主題를 위한 도서목록, 中學校 圖書百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必讀圖書 選定の 구체적 基準

필독도서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한마디로 나타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

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具體的인 選定方向을 살펴 보기로 한다.

① 김승환 교수의 선정기준

김승환 교수는 선정기준을 기본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¹⁷⁾ ㉠ 기본적인 기준은 新刊보다는 古典을 중심으로 한 良書, 국민정신의 양양을 위한 독서, 人格形成에 대한 기초와 교양, 思考能力, 독서흥미, 展開讀書 등을 들고 있다.

㉡ 구체적인 기준은 愛國心, 전통적인 가치, 人類愛, 자신감, 忍耐心, 용기, 兄弟愛, 우정, 열등감, 준법정신, 유머, 勤勉, 자연사랑, 향토애, 創意力, 정의, 平和, 협동, 孝道, 노인공경, 女性, 애교심, 信仰心, 희망, 자기반성 등을 들고 있다.

② 日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必讀圖書委員會의 選定基準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必讀圖書委員會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추천하고 싶은 圖書群을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中學校, 高等學校의 5개 그룹으로 나누어 「何を どう 讀ませるか」라는 書名으로 1958년에 초판을 낸 후에 개정을 거듭하여 1986년에 제5판을 내고 있다. 이 必讀圖書目錄은 학교도서관 專門研究機關이 편집위원회를 特設하여 전국에서 공개모집한 토의위원의 토의에 회부하여 의견을 구하고, 국립교육연구소, 大學, 兒童文學, 評論家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수차에 걸친 검토를 거쳐 방대한 자료의 이용에 근거하여 初等學校 低學년부터 高等學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讀書教育의 指導體系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이다.

일본의 필독도서목록의 선정기준은 크게 세가지 즉 ㉠ 讀書生活을 豊富하게 하는 관점 ㉡ 독서에 의한 人間形成의 관점 ㉢ 書誌的 관점으로 나누어

17) 金承煥, 讀書教育과 現場指導 (서울: 나라기획, 1979), pp. 69-71.

선정하고 있다. 이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¹⁸⁾

㉔ 讀書生活를 豊富하게 하는 觀點은 독서의 즐거움과 讀書興味를 培養하고, 바람직한 讀書態度和 習慣을 기르며, 讀書領域의 擴大와 深化를 도모하고, 集團속에서 思考의 深化를 도모하는 것 등이다.

㉕ 독서에 의한 人間形成의 觀點은 豊富한 心情을 기르고, 自己의 發見과 確立을 도모하며, 社會속에서 삶의 方法을 생각하도록 하고, 科學的인 思考와 態度를 기르는 것 등이다.

㉖ 書誌의 觀點은 도서의 범위를 學生들 자신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독서물로 한정하였으며, 여러개의 작품이 동시에 수록된 것은 배제하였으나 단편작품의 경우 1작품이 1책으로 간행되는 경우는 혼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선택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쳐서 이용되더라도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韋書版(hard bound)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圖書의 定價은 비싸지 않은 것으로 하고, 古전작품인가 현대작품인가 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았으며, 繡案書나 改作書는 제외하였다. 끝으로 개인출판물이나 直販으로 서점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것이나 絶版된 자료는 제외하였다.

③ 韓國學校圖書館研究會의 選定基準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는 1994년에 전국 15개 市·道 教育廳에 의뢰하여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學校級別로 學年別 教科와 主題를 중심으로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입력하여 지정빈도수를 집계하였다. 지정빈도수를 집계한 자료를 출력하여 충청남도 교육연구원의 研究士, 獎學士 그리고 현지 교사와 主題專門家에게 의뢰하여 주제별로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일선학교에서는 必讀書와 勸獎圖書를 구분하여 독서교육을 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시

18)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必讀書委員會. 何を どう 讀ませるか. 五訂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6), pp. 18-24.

·도의 목록을 분석한 결과 필독도서와 권장도서의 구분이 애매모호하여 必讀圖書를 위주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학년별 구분 역시 애매모호하여 학년별 구분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¹⁹⁾

이 목록은 특히 敎科學習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敎科와 主題別로 목록을 작성한 이 특징이다.

④ 청소년도서 선정위원회의 선정기준

靑少年圖書 選定委員會는 1981년 1월 부터 1989년 11월 말까지 국내에서 출판판매되고 있는 청소년도서 중에서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²⁰⁾

선정기준은 現代의 作品을 주로 하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도서 중에서 國內作家的 創作圖書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내용이 아닌 긍정적인 내용의 도서와 시대의 발달에 맞는 도서,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고 의지력·思考力·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科學圖書 및 사회·교양도서는 가급적 많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교육적인 유효성을 고려하였다.

한편, 오락·선정적인 도서, 非道德的·비교육적인 도서, 표현이 저속한 도서, 편견에 치우치거나 과장된 내용의 도서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독자대상에 알맞는 크기의 글자, 오자·탈자가 없고, 삽화 및 체배 등 편집이 무난하고 紙質·장정·印刷·제책 등에 하자가 없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또한, 저자·화가·發行人·발행처·발행연월일·정가, 翻譯일 경우 원전의 표시, 간행 횟수 등 출판의 基本原則을 성실히 이행한 도서를 선정하였다.

끝으로, 전집물일 경우 그 내용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인정되는

9) 韓國學校圖書館硏究會, 選定圖書目錄: 初·中·高 敎科(主題)中心 (公州: 韓國學校圖書館硏究會, 1994), pp. VII - X.

0) 청소년도서 선정위원회,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책(서울: 한국출판공고, 1990), pp. 11-12.

것을 선정하였으며, 한질 전체를 1종으로 간주하였다.

⑤ 서울교사협회의 선정기준

서울교사협회는 初等學校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맞는 도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100여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또한 출판관계잡지, 서점의 책소개, 도서목록 등을 참고하여 學生들의 水準과 發達段階에 적합한 도서를 초등학생용 105권, 중·고등학교용 210권을 선정하였는데 選定基準은 다음과 같다.²¹⁾

학생들의 경험과 발달단계에 알맞고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도서, 사회저변의 삶을 보여 주면서 구체적인 삶이 드러나고 도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도서,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도서, 올바른 과학관을 심어 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⑥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선정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靑少年에게 適合하고 청소년들의 삶에 유익한 도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構成하여 교과담당교사의 諮問과 討論을 거쳐 202권의 도서를 선정하였는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²²⁾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도서,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도서, 올바른 역사적 삶을 지향하는 도서 등을 기준으로 도서를 선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가지 기준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 하나는 靑少年들의 能力과 興味 및 發達段階를 고려하여 정서 함양과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되고 經驗擴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教養과 學習에 도움을 줄 수

21) 서울교사협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책을 권할까(서울: 돌베개, 1989), pp. 23-24.

22)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책마을로 가는 징검다리: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202 (서울: 돌베개, 1992), pp. 26-27.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독도서의 선정기준은 두가지 관점 즉, 情緒涵養 및 價値觀 確立의 관점과 教科學習을 직접·간접으로 원조할 수 있는 관점에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 必讀圖書의 構成

중·고등학교의 필독도서 선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情緒涵養 및 價値觀 確立과 教科學習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필독도서의 선정기준이 설정되면, 必讀圖書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면 必讀圖書目錄의 構成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서의 主題別 構成을 고려하여야 한다.

독서는 어느 한가지 主題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흔히들 讀書는 國語敎科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소설이나 수필 등 文學分野의 도서를 읽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必讀圖書가 특정 주제에 치우치게 되면 讀書傾向의 편향성을 초래하게 되어 균형있고 폭 넓은 독서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필독도서 목록이 文學에 偏重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讀書敎育이 아니라 文學敎育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주제를 폭 넓게 수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접할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必讀圖書는 文學, 科學, 역사, 傳記, 철학, 社會, 지리 등 각 영역이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과 靑少年의 讀書興味 發達段階와 요구도를 고려하여 폭 넓은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必讀圖書의 主題別 구성은 KDC의 10개 主類를 참고로 하여 각 주제분야

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를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各國의 學校圖書館 資料 主題別 構成基準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²³⁾ 일본,²⁴⁾ 중국²⁵⁾ 등 각국의 學校圖書館資料 主題別 構成基準은 국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참고로 韓國圖書館協會 基準分科委員會가 만든 學校圖書館 藏書 主題別 構成基準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⁶⁾

〈표 1〉 학교도서관 장서 주제별 구성기준

유형	총	철	중	사	순	기	예	어	문	역	그	계
학교별	류	학	교	회	수	술	술	학	학	사	림	계
				과	과	과					책	
國民學校	4	2	2	8	13	7	5	3	25	16	15	100%
中學校	5	5	3	10	15	8	6	4	27	17		100%
高等學校	6	6	4	10	15	9	7	8	25	10		100%

(2) 필독도서목록은 難易度を 考慮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讀書能力的 個人差는 같은 學年, 같은 學級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²⁷⁾ 이러한 개인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23) Gillespie, John T & Diana L. Spirt,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New York and London : Bowker, 1983), p. 185.

24) 圖書館教育研究會, 新編 學校圖書館通論, 改訂版 (東京:學藝圖書, 1992), pp. 223-226.

25) 中國圖書館學會, “中國圖書館標準,” 千惠鳳 譯, 도협월보, 제9권, 제8호(1968. 10), p. 14.

26)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81), p. 44.

27) 讀書指導研究會, 讀書指導事典 (서울:景仁文化社, 1982), p. 73에 보던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독서능력은 10년간의 차이가 있는데, 6학년 학생이 3학년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독서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 또한, 阪本一郎, 現代の 讀書心理學 (東京:金子書房, 1971), pp. 114-115에 보던 독서능력의 개인차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개인차가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個人差가 발생하는 원인은 독서능력 발달의 영향요인, 즉 知能, 視聽覺器官의 상태, 흥미, 性格,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中學校의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知能, 흥미, 性格, 환경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게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 하더라도 學習能力이나 讀書能力이 우수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학생이 있다. 따라서 필독도서의 難易度를 상·중·하로 나누어 우수한 학생과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 있는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목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김승환 교수의 목록²⁸⁾이나 日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의 목록²⁹⁾은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3) 독서자료의 내용에 대한 男女 性別關係를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知的 好奇心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人格形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아동이나 학생들은 人格形成에 있어서 자기중심의 성격으로 발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도서의 主題와 內容이 男女의 役割과 關係를 인식하고 相互理解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남자는 여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必讀圖書目錄을 구성해야 하겠다. 즉, 도서의 내용과 주제가 남녀 어느 하나의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 원만한 인격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主題의 性格을 男, 女, 共通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8) 金承煥, “段階別 精讀圖書 目錄 研究,” 圖書館學(江南大學校), 第1輯(1983), pp. 69-70.

29)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必讀圖書委員會, 何を どう 讀ませるか, 五訂(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6)에 보면 필독도서목록을 초등학교 저·중·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고 각 목록내에서는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4) 國內圖書와 外國圖書의 比率을 고려하여야 한다.

필독도서목록은 학생들에게 主體性을 심어 주는 관점과 넓고 깊은 世界觀과 폭 넓은 生活經驗을 가지게 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의 고유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主體意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우리의 것만 고집하게 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계 각국의 여러 문화와 골고루 접촉할 수 있도록 필독도서목록이 구성되어야 한다. 初等學校의 경우는 국내도서의 비율을 높게 하고, 中學校 때는 국내도서와 외국도서의 비율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구성하고, 高等學校에 가서는 오히려 외국도서의 비율을 더 많이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初等學校에서는 국내도서와 외국도서의 비율을 6 : 4 정도로 하고, 中學校는 5 : 5, 高等學校에 가서는 4 : 6으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⁰⁾

(5) 必讀圖書目錄은 展開讀書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필독도서는 무조건 많이 준비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필독도서는 그 분량을 적절히 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필독도서는 讀書의 生活化 관점에서 이상적인 독서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즉, 하루에 한시간 정도로 매일 독서한다고 가정하고 일주일에 한권 정도 소화한 다음에 必讀圖書를 기초로 하여 展開讀書가 가능하도록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日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必讀圖書委員會에서는 필독도서로 제시된 도서를 한권 읽고 난 후에 그 도서와 유사한 주제의 도서나 동일한 저자의 다른 저서를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목록

30) 金承煥, 前揭論文, p. 77.

을 구성하고 있다.³¹⁾ 따라서, 학생들의 讀書能力을 고려하여 讀書를 習慣化하고 生活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³²⁾ 제시된 필독도서를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필독도서와 연계된 展開讀書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학년별로 50종 정도의 必讀圖書를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6) 書誌的 觀點을 考慮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필독도서의 구성에는 도서의 種類, 제본의 상태, 價格, 유통상의 조건 등 서지적 觀點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³³⁾

① 필독도서의 선정대상 범위는 학생들의 情緒醇化와 價値觀 形成 그리고 學習에 도움이 되는 도서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시켜야 하겠으나 일반적인 解說書, 학습참고서, 年鑑, 圖鑑 등의 도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② 가능한 한 여러개의 작품이 동시에 실려 있는 도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短篇作品의 경우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책으로 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그 도서를 선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必讀圖書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全集類에 포함되어 날권 구입이 불가능한 도서는 必讀圖書의 대상으로는 곤란하다.³⁴⁾

31)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必讀圖書委員會, 何を どう 讀ませるか, 五訂(東京: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6)에서는 각각의 필독도서에 대하여 ① 도서내용의 概要 ② 指導의 要點 ③ 指導의 方針 ④ 著者と 著書로 구성하고 있는데 ③과 ④에서 그 도서와 주제가 유사한 도서와 동일한 저자의 저서를 전개독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 金承煥, “段階別 精讀圖書 目錄 研究,” 圖書館學(江南大學校), 第1輯(1983), pp. 73-75에 보면 바람직한 독서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1분간 독서속도는 1,200자 정도, 하루의 독서시간은 40분에서 60분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볼 때 책한권의 평균면수가 270면이고, 1면당 평균 730字로 보면 일주일에 한권을 충분히 소화하고 전개독서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33)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必讀圖書委員會, 何を どう 讀ませるか, 五訂(東京: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6), pp. 22-24.

34) 沈暎錫, “初等學校 必讀圖書選定 方向과 基準,” 出版文化, 제201호(1982. 6), p. 8.

③ 제본상태를 고려하여야 하겠다. 必讀圖書는 長期間에 걸쳐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용하더라도 破損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표지로 제본(hard bound)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얇은 표지(paper bound)로 출판되어 달리 이것을 대체할 만한 도서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선정하여야 하겠다.

④ 필독도서는 價格이 適切하여야 한다. 가격이 비싼 도서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구입하는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도서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값이 비싸더라도 내용이 좋고 꼭 필요한 책이라면 圖書館에서 구입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지나치게 값싼 도서도 피해야 한다. 값싼 도서 중에는 內容이 不充分하거나 대충 번역하여 아무렇게나 제작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아울러 個人出版物이나 直販으로 일반서점에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한 도서나 絶版된 자료는 내용이 우수하고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필독도서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⑤ 翻譯書의 경우 고전작품인가 현대작품인가 하는 것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가능한 한 完譯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翻案書나 改作書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

⑥ 마지막으로 活字의 크기, 插畫, 지질, 印刷狀態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겠다. 활자의 크기는 적어도 9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삽화는 讀書資料의 內容을 잘 반영하여 讀書意慾을 고취시켜 주고, 상상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쇄상태도 선명하고 紙質은 부드럽고 광택이 없는 미색의 종이인 것이 적당하다.

IV. 必讀圖書目錄의 管理와 運營

1. 必讀圖書目錄의 管理

必讀圖書制度는 讀書教育에 대한 올바른 目標을 樹立하고, 學生들의 독서 능력과 발달단계를 확인한 다음에 情緒涵養과 價値觀 確立 그리고 教育과 學習의 援助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독도서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⁵⁾

① 必讀圖書制度는 항상 교육적인 배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Best Seller나 메스컴의 영향을 받아서 선정하고 운영해서는 안된다. 특히 必讀圖書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學說이나 思想에 집착하지 말고 폭넓게 관련 독서자료를 소개하여야 한다.

② 必讀圖書制度는 어떠한 과제와 결부시켜 행하는 것이므로 目的이 明確해야 한다. 따라서 兒童이나 學生의 發達段階에 따르는 동시에 생활상의 관심사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목표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讀書教育의 目標을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하겠다.

③ 필독도서는 權威主義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商業性을 탈피하여야 한다. 良書나 古典보다는 學生들의 발달단계 및 교육과 학습에 알맞는 適書를 선정하는 것이 권위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좋은 책이란 學生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으로 教師나 父母를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교사의 기호나 獨善이 강하게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學生들이 애독하고 관심이 있는 책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다.³⁶⁾

④ 必讀圖書는 교사 스스로가 먼저 읽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거나 감동한

35) 菅井光男, “高校 推せん圖書の 指導と 反省,” 學校圖書館, 第198號(1967. 4), pp. 44-45.

36) 齊藤好孝, “要は 與え方にある,” 學校圖書館, 第73號(1956. 11), p. 28.

책을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시켜야 한다. 讀書教育은 교사가 먼저 책을 읽는 데서 출발하여야 하며, 항상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讀書生活을 영위하여야 한다.

⑤ 독서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人格陶冶에 있으므로 全人的 人格完成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文學이나 思想書에 편중시키지 말고 자연과학이나 社會科學, 역사, 哲學 등의 도서도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必讀圖書 선정의 범위는 직접적인 學習參考書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 걸친 도서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⑥ 必讀圖書는 지역마다 학교마다 統一되어서는 안된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발달단계, 흥미 등 個人差를 무시하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必讀圖書는 단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學校의 여러가지 狀況과 特性을 고려하여 學校의 自律的인 運營에 맡겨 두어야 하며, 학생들의 요구수준에 부합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⁷⁾

⑦ 필독도서는 年次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도서라 할지라도 특정 도서가 장기간 지정되면 다른 圖書의 發展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1~2년 정도 지정하여 활용한 후에는 다른 출판사의 다른 도서를 선정하는 것도 출판계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 그리고 教科學習에 관련되는 예상도서가 많은데 일부의 도서만 장기간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³⁸⁾ 예를 들면, 특정 학년의 교재에 A B C D의 偉人이 등장한다면 必讀圖書目錄에서 이들 偉人을 모두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D만 지정할 경우 나머지 A B C를 접할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⑧ 展開讀書가 가능한 圖書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독도서는 讀書生活의 시작일 뿐이고 독서생활의 完成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정해 준 必讀圖書를 모두 읽었다고 해서 읽어야 할 책은 다 읽었다고 믿어서는 안된다. 必讀圖書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도서의 著者를 中心으로 또는 內容이나

37) 黑澤浩, “必讀書의 構成,” 學校圖書館, 第73號(1956. 11), p. 35.

38) 沈暉錫, “初等學校 必讀圖書選定 方向과 基準,” 出版文化, 第201號(1982. 6), p. 9.

主題를 中心으로 展開하여 다른 도서를 스스로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展開讀書가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⁹⁾

2. 必讀圖書의 評價

必讀圖書가 어떻게 읽혀지고 있고,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등을 確認하고 評價하는 일은 讀書教育의 方針을 세우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차후에 더 나은 필독도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필독도서의 效果와 活用을 評價하는 方法은 ① 앙케이트를 실시하는 방법 ② 개인 독서카드를 조사하는 방법 ③ 북 카드를 살펴 보는 방법 ④ 직접 과제를 주고 문제해결능력을 점검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면 必讀圖書를 評價하고 指導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⁰⁾

① 長篇은 必讀圖書로서는 지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적당하다. 학생들은 도서의 분량이 너무 많으면 끝까지 읽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必讀圖書로서는 장편보다는 短篇이 좋다. 단편은 지루한 감을 없앨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고 지도하기가 쉬운 장점을 가질 수 있다.

② 解說書적인 것은 잘 읽혀 지지만 原典은 거의 읽혀지지 않는 것이 현대의 일반적인 독서경향이다. 그러므로 먼저 解說書를 읽어 완전히 소화하고 난 후 原典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文學分野의 도서는 잘 읽혀지고 있으나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分野의 도서는 잘 읽혀지지 않아 편식의 경향이 있다. 全人的 人格形成의 측면에서 다방면의 주제에 대한 도서를 폭 넓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

39) 金承煥, “段階別 精讀圖書 目錄研究,” 圖書館學(江南大學校), 第1輯(1983), pp. 78-79.

40) 菅井光男, “高校 推せん圖書의 指導と 反省,” 學校圖書館, 第198號(1967. 4), p. 45.

하다.

④ 必讀圖書에 대한 依存度가 너무 높아서는 안된다. 선정해 준 必讀圖書을 읽고 난 후 계속해서 展開讀書가 가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⑤ 필독도서는 指定과 동시에 放置되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장단점, 개선점 등을 研究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讀後感想文, 독서노트, 독서토론, 學校의 讀書實態調查 등의 결과를 참고로 해서 항상 존재상태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⁴¹⁾

⑥ 독서 후 讀書感想文의 발표나 讀書討論 등을 통하여 자신의 日常生活의 문제와 결부시켜 問題解決의 能力이 伸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독서하여 이해하고 있는가를 事後指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²⁾

3. 必讀圖書 選定을 위한 參考資料

必讀圖書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학생들의 能力과 發達段階 그리고 教科學 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司書教師를 중심으로 각 교과담당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한 必讀圖書選定委員會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教育部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도서목록, 다른 학교의 필독도서목록, 기타 필독도서 선정에 도움이 되는 參考資料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必讀圖書을 선정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參考資料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것과 번역된 것을 중심으로 참고가 될 만한 目錄을 紹介하기로 한다. 지면관계상 解説은 생략하고 그 목록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Robert B. Downs. 歷史를 움직인 책들. 金芝雲 譯. 서울: 三星美術文化財

41) 黑澤浩, “必讀書의 構成,” 學校圖書館, 第73號(1956. 11), p. 35.

42) 上掲論文, 同面.

團, 1976. (三星文化文庫 78)

Somerset Maugham. 世界 10大 小說과 作家. 洪思重 譯. 서울: 三星美術文化財團, 1973. (三星文化文庫 41, 42)

편집부. “미래를 위한 오늘의 고전 60選.” 출판저널, 제100호(1992. 2. 20), pp. 10-15. (한국사회의 대표적 지성들이 뽑은 현대의 명저)

강혜원, 박영신, 이용수. 즐거운 독서여행: 청소년을 위한 독서 길잡이. 제1권.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3.

국립중앙도서관. 나를 감동시킨 이 한권의 책. 서울: 동 도서관, 1993.

金承煥. “段階別 精讀圖書 目錄研究.” 圖書館學(강남대학), 제1집(1983), pp. 55-81.

문화체육부. 추천도서목록: 제1회~25회. 서울: 문화체육부, 1993.

서울經濟新聞. 지성인의 양식:名著 다이제스트 100選. 서울: 둥지, 1991.

서울교사협의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책을 권할까:독서지도방법과 권장도서. 서울: 돌베개, 1989.

世界를 움직인 百卷의 책. 서울: 東亞日報社, 1968. (新東亞 1968. 1 附錄)

어린이 책 선정위원회. 어린이들에게 권하는 책. 서울: 한국출판금고, 1990.

오늘의 思想 100인 100권. 서울: 東亞日報社, 1986. (新東亞 1986. 1 附錄)

이정춘 외.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1993. (한국출판연구총서 15)

정원식. 사회저명인사가 추천하는 百人百選. 서울: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1986.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中國의 古典百選. 서울: 東亞日報社, 1980. (新東亞 1980. 1 附錄)

책의 해 조직위원회. 책사람 모임:추천도서목록. 전국주소록.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3.

川崎 洩. 한권으로 世界의 名著 백권을 읽는다. 장근오 역. 서울: 예본, 1990.

청소년 도서 선정위원회.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책. 서울: 한국출판금고, 1990.

한겨레신문사 문화부. 책 이야기: 한겨레신문이 권하는 좋은 책 일백권. 서울 : 한겨레신문사, 199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리들이 읽어야 할 책들. 서울 : 동위원회, 1990. (각계에서 추천한 청소년 도서)

韓國의 古典百選. 서울 : 東亞日報社, 1969. (新東亞 1969. 1 附錄)

한국출판연구소. 청소년 독서환경실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출판연구소, 1987.

한국출판연구소. 국민독서실태조사: 제1~3회. 서울 : 한국출판연구소, 1993~1995.

韓國學校圖書館研究會. 選定圖書目錄: 初·中·高 教科(主題) 中心. 公州 : 同研究會, 1994.

황백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읽어야 하나. 서울 : 배움터, 1985.

황백현. 독서상담: 그 실제와 이론. 서울 : 배움터, 1985.

V. 要約 및 結論

좋은 책 한권을 읽는 것이 때로는 한 個人의 一生을 좌우하고, 運命을 바꾸어 놓을 만큼 강한 影響力을 가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 知的 好奇心이 강하고 感受性이 예민한 靑少年 時期에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所重하고 값진 經驗이 되는 것이다. 人格形成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時期라고 할 수 있는 靑少年期의 讀書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올바른 삶의 세계로 引導해 주는 精神的인 行爲인 동시에 所重한 情緒的 體驗이다. 왜냐 하면, 청소년시기의 독서에서 받은 강한 印象은 成人이 된 후에도 잊지 못하고 평생 神의 啓示처럼 항상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必讀圖書目錄의 必要性, 選定과 構成, 管理와 運營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必讀圖書의 必要性은 크게 두가지 즉 情緒涵養과 價値觀 確立을 위한 관점과 필요한 知識과 情報를 찾아 내어 課題解決 能力을 길러 줄 수 있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② 必讀圖書 選定の 일반적인 기준은 各 教科의 學習活動을 援助하기 위한 도서, 特別活動을 支援하기 위한 도서, 學校行事 등의 活動을 援助하기 위한 도서, 教養과 人格形成에 寄與할 수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시 말하면, 情緒涵養 및 價値觀 確立과 教科學習을 직접·간접으로 원조할 수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야 하겠다.

③ 必讀圖書目錄의 構成은 도서의 主題別 構成, 難易度, 內容에 대한 男女 性別關係, 國內圖書와 外國圖書의 비율, 展開讀書 가능여부, 書誌的 觀點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겠다.

④ 필독도서목록은 항상 教育的인 배려하에 관리되어야 하고, 目的이 明確해야 하며, 權威主義와 商業性을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먼저 스스로 讀書의 模範을 보여야 하며, 學校마다 地域마다 統一시키지 말고 학교의 여러가지 狀況과 特性을 고려하여 學校의 自律的인 運營에 맞기는 것이 좋으며, 年次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물론 展開讀書가 가능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必讀圖書의 評價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長篇보다는 短篇으로 하는 것이 좋고, 解說書를 읽고 난 후 原典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多方面의 讀書資料를 폭 넓게 읽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필독도서에 대한 依存度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하고, 展開讀書가 가능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독도서목록은 指定과 동시에 放置하지 말고 계속해서 장단점과 改善點을 研究하고 檢討해야 하겠다. 아울러 필독도서를 읽고 난 후 자신의 日常生活의 문제와 결부시켜 問題解決의 能力이 伸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⑥ 끝으로, 學校現場에서는 司書教師를 중심으로 각 教科擔當教師가 참여한 必讀圖書 選定委員會를 구성하여, 情緒醇化와 價値觀 確立 및 教科學習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教育部나 시·도 교육청 혹은 타 기관의 목록 등 다양한 目錄을 參考하여 選定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 고 문 헌〉

- 丘仁煥. “中等學校 必讀圖書選定 方向과 基準.” 出版文化, 第201號 (1982. 6), pp. 10-12.
- 金寶英. “讀書指導와 勸獎圖書目錄選定: 初中高 段階別 目錄을 選定해 보고.” 慶北圖協, 第8輯 (1981), pp. 91-104.
- 金承煥. “段階別 精讀圖書 目錄研究.” 圖書館學(강남대학), 제1집 (1983), pp. 55-81.
- 金承煥. 讀書教育和 現場指導. 서울: 나라기획, 1979.
- 金貞愛. “中學校에서의 讀書指導의 實際.” 文教行政, 第18號 (1983. 6), pp. 67-71.
- 沈暉錫. “初等學校 必讀圖書選定 方向과 基準.” 出版文化, 第201號 (1982. 6), pp. 7-9.
- 오영환. “중. 고교 학생 필독도서 선정과 독서지도.” 0 출판문화, 제78호 (1972. 3), pp. 14-15.
- 林達煥. “國民 必讀圖書 選定 및 讀書 展開.” 研究月報 (全北教育研究院), 제233호 (1991. 10), pp. 48-53.
- 忠清北道 教育委員會. “必讀圖書의 選定과 指導.” 忠北教育, 제61호 (1981. 12), pp. 129-143.
- 韓國學校圖書館研究會. 選定圖書目錄: 初·中·高 教科(主題) 中心. 公州: 同 研究會, 1994.
- 허병두. “새로운 추천도서 목록을 위하여.” 출판저널, 제185호 (1996. 2. 5), p. 9.
- 황백현. 독서상담: 그 실제와 이론. 서울: 배움터, 1985.
- 高橋豊. “學習活動に 直結する 資料의 整理.”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56-59.
- 高宮洸. “新入生へ 渡す 適書 150選.” 學校圖書館, 第329號 (1978. 3), pp. 38-40.
- 谷口一男. “教師의 必讀書가 必要.”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35-36.

- 菅野元子.“必讀書と いうものについて：私の 解釋と 希望.” 學校圖書館, 第73號(1956. 11), pp. 18-20.
- 菅井光男.“高校 推せん圖書の 指導と 反省.” 學校圖書館, 第198號 (1967. 4), pp. 43-45.
- 今村秀夫.“ブックリスト 作成の 觀點.” 學校圖書館, 第329號 (1978. 3), pp. 18-21.
- 藤田圭雄.“子どもの 必讀書とは.”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8-11.
- 藤川正信.“必讀書目の 問題.”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47-51.
- 福島ツヤ子.“低・中・高 各40冊の リスト.” 學校圖書館, 第329號 (1978. 3), pp. 22-24.
- 福永義臣.“ブックリスト 作成の 手順.” 學校圖書館, 第329號 (1978. 3), pp. 13-16.
- 四方田正作.“選定・推せん・基本圖書目錄.” 學校圖書館, 第226號 (1969. 8), pp. 51-54.
- 森善和.“「富中必讀圖書50選」ほか.” 學校圖書館, 第329號 (1978. 3), pp. 35-37.
- 杉淵正明.“必讀圖書 設定の 過程：讀書指導の 展開と その構圖.” 學校圖書館, 第95號 (1958. 9), pp. 59-61.
- 小泉泰一.“「推薦圖書目錄」ほか.” 學校圖書館, 第329號 (1978. 3), pp. 43-45.
- 新井恒易.“圖書の 認定と 推せん制の あゆみ.”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37-41.
- 宇都宮女子高等學校.“高等學校 標準書目の 研究.” 讀書科學, 第4卷, 第4號 (1960. 3), pp. 49-56.
- 林茂夫.“その中に バックボーンを.”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32-34.
- 主司豊義.“必讀書の 基本問題.”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25-27.
- 長田美佐.“必讀圖書制度による 讀書指導.” 學校圖書館, 第107號 (1959. 9), pp. 29-32.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必讀圖書委員會. 何を どう 讀ませるか. 五訂. 東京：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6.
- 全國SLA調査部.“どんな 參考文獻が あろか.”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52-55.
- 定金恒次.“高校ホ ームルーム における 讀書指導.” 學校圖書館, 第198號 (1967. 4), pp. 46-48.

- 鳥越信. “良書選擇にともなう 二、三の 問題.”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29-32.
- 早津秀雄. “推薦圖書と 小論文 指導對策について: 進學高校の 場合.” 讀書科學, 第26卷, 第4號 (1982. 12), pp. 176-185.
- 辰巳義幸. “兒童圖書の ブック・リストについて.” 圖書館雜誌, 第80卷, 第8號 (1986. 8), pp. 465-467.
- 川畑淑子. “必讀圖書 實踐指導計劃.” 學校圖書館, 第120號 (1960. 10), pp. 31-37.
- 青柳幸一. “必讀圖書選定に 關する 一つの 基準: 中學 國語教科書に おける 文學作品の 考察.” 學校圖書館, 第75號 (1957. 1), pp. 33-37.
- 椎野正之. “必讀書と いう 言葉の 考え 方: その 周邊を めぐつての 覺書.”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20-24.
- 阪本一郎. “小・中・高校生の 愛讀書 300選.” 讀書科學, 第5卷, 第2號 (1960. 9), pp. 56-59.
- 黑澤浩. “ブックリスト 作成の 留意點.” 學校圖書館, 第329號 (1978. 3), pp. 9-12.
- 黑澤浩. “必讀書の 構成.” 學校圖書館, 第73號 (1956. 11), pp. 34-35.
- Adler, Mortimer J. *How to Read a Book: a Guide to Reading the Great Book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 Carter, Betty. *Best Books for Young Adults: the Selections, the History, the Roman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4.
- Harris, Albert J. *Effective Teaching of Reading*. New York: David McKay, 1962.
- Stoodt, Barbara D. *Reading Instruc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1.
- Strang, Ruth, Constance M. McCullough and Arthur E. Traxer. *Problems in the Improvement of Reading*. New York: McGraw-Hill, 1955.

A Study on the List of Must Books in Middle Schools.

by Byun, Woo—Y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selec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Must Books List in middle schools. A great book can change a person's life and future. Especially, reading in the juvenile period is important because of their intellectual curiosity and sensitivit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necessity of Must Books can be considered in two perspectives: One is the cultivation of emotion and sense of value and the other i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bilities.

2. The general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Must Books are whether a book is supportive of learning activiti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of activities for school festivals. And whether a book is contributing to the building of good characters of students or not should be considered, too.

3. Th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uch matters as the organizational and distributional ratio among subjects of the Must Books, the degree of difficulties, the ratio of books for both male

* K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female students, the ratio of foreign books to domestics, the possibilities of further reading and the bibliographical matters.

4. The points to be duly considered for the management of Must Books List are the educational considerations, clearness of objectives, the elimination of commercialism and authoritarianism in the book selection. The Must Books List should be managed autonomous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and be updated annually.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teacher should be a good reader himself.

5. It is better to include short stories than the long one in the Must Book List. Students should be guided to read explanatory text first and then to move to the original text. And they should be exposed to books in various subjects and not to be too dependent on the Must Books List. They should be able to develop the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the reading of the Must Books.

6. Finally, the Must Books selection committee should be composed of both teacher librarian and subject teachers. It is desirable that books for the cultivation of emo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ense of value, and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bility should be selected by consulting the various reading lists compi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Board of Local Education and other authorities concerned.